

유아의 텍스트 결속 형식 습득 과정*

장경희 · 김명희 · 김순자**

<차례>

1. 서 론
2. 유아의 텍스트 결속 형식
 - 2.1 단어 의미의 상관성에 의한 결속 표현
 - 2.2 지시 표현
3.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
 - 3.1 결속 형식의 습득 시기와 순서
 - 3.2 결속 형식의 습득 단계
4. 결 론

1.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23개월 - 43개월 유아들이 텍스트의 결속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살피는 데 있다.¹⁾ 유아기에 아동은 의사전달의 기본 단위인 문장을 확장하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2-074-AM1055)

** 장경희(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김명희(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김순자(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 이 논의에서는 만 1개월-11개월까지의 아동은 영아, 만 12개월-71개월까지의 아동은 유아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본 논의는 23개월 - 43개월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 시작 시점은 23개월로 잡았는데, 이는 분석 자료에서 유아가 텍스트를 구성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작 시점은 아동이 일반적으로 21개월-23개월 시기

여, 텍스트를 처음으로 구성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아동은 텍스트의 결속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 접속 표현 등 단어의 의미 상관성에 의한 결속 표현과 조응 표현, 직시 표현, 생략 표현 등의 결속 표현을 사용한다. 유아기의 아동은 이와 같이 성인과 동일한 여러 가지 결속 형식을 습득하여 사용하지만, 결속의 내용에서는 성인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아동이 사용하는 결속 형식도 일정한 순서에 의해 습득된다.

유아기 아동의 결속 형식 습득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내용을 크게 두 방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결속 형식을 고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아동이 습득하는 결속 형식의 출현 시기를 기술하고, 결속 형식과 결속 방법에 대한 습득 단계를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주된 자료는 1주일에 1회 한 시간씩 10개월간 녹음하는 8명 아동의 전사 자료이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대상 자료

대상 아동	나이(개월)	기간	파일 수
A	23개월-30개월	10개월	20
B	25개월-34개월	10개월	20
C	24개월-32개월	9개월	18
D	24개월-30개월	8개월	16
E	31개월-38개월	8개월	16
F	32개월-41개월	10개월	20
G	32개월-39개월	10개월	20
H	34개월-43개월	8개월	16
합계			146

에 텍스트를 구성하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김명희·김순자, 2003 참조). 유아의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모두 관찰하기 위해서는 만 71개 월까지 살펴는 것이 필요하나, 본 논의에서는 우선 아동이 텍스트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43개월까지 살펴보자 한다. 이 시기 이후의 텍스트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은 추후 연구 과제로 삼는다.

대상자별로 개월별 2개의 전사 파일을 선정하여, 총 146개의 전사 자료를 분석 자료로 대상으로 하였다.²⁾ 아동별로 관찰이 이루어지는 시작 시점은 다르나, 8~10개월간 지속적인 관찰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속 형식의 습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피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2. 유아의 텍스트 결속 형식

이 장에서는 유아기 아동이 사용하는 결속 형식의 유형과 사용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유아기 아동이 사용하는 결속 형식은 성인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사용하는 결속 형식의 유형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아동은 처음부터 성인이 사용하는 모든 결속 형식을 습득하여 사용하지는 않으며, 성인이 사용하는 결속 형식 가운데 유아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 또한 아동이 일정 범주의 결속 형식을 습득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사용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아동이 반복 표현을 습득하여 결속 형식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모든 반복 표현의 실제적인 쓰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 표현의 결속 형식의 사용 방법이 성인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아동이 텍스트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유아기 아동이 사용하고 있는 결속 형식의 유형과 사용 양상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2.1 단어 의미의 상관성에 의한 결속 표현

유아기 아동은 결속 형식으로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 접속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속 형식은

2) 전사 파일은 1시간의 녹음 분량 가운데 2,000어절 정도를 전사한 것이다. 이 가운데 부모의 발화나 다른 대화 참가자의 발화를 제외하면, 아동의 발화는 한 파일 당 대략 200~300발화 정도가 된다.

모두 단어 의미의 상관성에 의해 결속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지닌다.³⁾

2.1.1 반복 표현

유아기에 나타나는 반복 표현은 결속 내용에 따라 습득 순서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 표현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반복은 문장 성분의 반복과 문장 반복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문장 성분의 반복은 세부적으로 선행 문장의 성분과 동일한 성분으로 반복하는 경우와 선행 문장의 성분과는 다른 문장 성분으로 반복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유아기에는 주어, 서술 성분, 목적어, 부사어 등의 동일 성분을 반복하여 두 문장을 결속하는 형식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⁴⁾

- (1) 아빠원숭이가, ((-)) 똑같이 했더[했어] - . 아빠원숭이가 후 - 하조[해 줘].
(25개월)

3) 단어 의미의 상관성에 의한 결속 표현은 단어뿐만 아니라 구절 등 단어 이상의 표현도 포함한다. 이러한 결속 표현 역시 기본적으로는 단어 의미의 상관성에 의해 결속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4) 자료 제시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엄마, 나는 명멍이가 좋아. ((-)) 아빠가 어제 ((사다준)) 명멍이 어디 가더 [갔어]? {폐를 쓰듯이} (33개월)
엄마: 그래.

아동의 발화는 맞춤법을 원칙으로 전사하였다. 그러나 발화가 아동 발음의 특성이나 구어의 특성을 반영할 경우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고 []에 표준어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전사에 사용된 기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적 요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 잘 들리지 않는 발화의 경우에는 ((-))으로 표시하였다.

(()): 부정확하게 들리는 발화는 (()) 그 발화의 형태를 적었다.

&: 발화하는 동안 1초 이상의 휴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으로 표시하였다.

[1 : 말겹침이 일어난 부분에서 말 겹침에 해당하는 부분에 [1으로 표시하였다.

- (2) 오빠가 수영했어[했어]. 유빈이가 수영하悌[했어]. (24개월)
 (3) 엄마 굴 좀 갖구 와. 나 굴 먹을래. (36개월)
 (4) 어느 마을에 - , 눈이 왔어요 - . 어느 마을에 달님이 아파 ((-)이)가 나갔어요. {이하 생략}(39개월)

(1)-(4)는 선행 문장과 동일한 성분으로 반복이 이루어지는 예이다. (1)은 선행 문장의 주어인 ‘아빠원숭이’를, (2)에서는 서술 성분인 ‘수영했어’를, (3)에서는 목적어 성분인 ‘굴’을, (4)에서는 ‘어느 마을에’라는 부사어 성분을 반복하여 문장을 결속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 성분 반복 가운데 주어 성분과 서술 성분의 반복이 많다. 두 성분의 반복은 동일 문장 성분의 반복 가운데 87%를 차지하고 있어, 유아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언어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⁵⁾

주어 성분 반복과 서술 성분 반복은 사용 빈도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특유의 사용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구어 텍스트에서는 1인칭 주어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유아기에는 1인칭 주어가 생략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유아기 아동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5) 아동: 으니는[은별이는] 안 무더운데[무서운데]? {은별이는 아동의 이름임}
 엄마: 안 무서워-?
아동: 으니는[은별이는], 울기두[울지도] 아나[않아]. (31개월)

5) 대상 아동들이 동일 성분을 반복하는 경우 반복되는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동일 성분 반복 표현의 성분별 출현 빈도

반복 성분	출현빈도	백분율
주어	108	44.81%
서술어	102	42.32%
목적어	18	7.47%
부사어	13	5.39%
합계	241	100%

(6) 아동: 난, 난 끄내면[꺼내면] 안돼?

엄마: <웃음/흐흐흐>

아동: <웃음/흐흐흐> 난 김치 좋아해서 그래. (37개월)

(5)-(6)은 1인칭 주어가 반복되는 예이다. 특히 유아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6)의 예에서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다.⁶⁾

주어 반복과 더불어 서술어의 반복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아동이 구성하는 텍스트 결속 구조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명희 · 김순자(2003:40-4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초기에는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면서 텍스트를 구성한다. 이 때는 대개 선행 문장의 서술어와 동일한 서술어가 후행 문장에서 반복된다. 아동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시작 시점에서 특히 서술 성분의 반복이 많이 나타난다.

상이한 문장 성분 반복은 선행 문장의 성분이 후행 문장에서는 다른 성분으로 반복되어 나타나 두 문장을 결속하는 것이다. 동일 문장 성분 반복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요소가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까지 동일하게 반복하는데 비해, 상이 성분 반복은 반복되는 요소가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위치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이 문장 성분 반복은 동일 성분 반복에 비해 인지적 노력이 더 드는 결속 방법이라 볼 수 있다.

(7) 아동: 늑대가 여기 죽었네.

엄마: 늑대가 가마솥에 들어갔어?

아동: 그이구[그리고], 그= 그이구[그리고] 부글부글 끓네. 늑대를. (26개월)

(8) 두타[주사] 없어. 두사[주사]. 이건 주타[주사] 아니야. (36개월)

6) 아동은 대명사를 습득한 이후에도 이름으로 자신을 지칭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아의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 볼 수 있다.

<1> 아동: 찌정[수정] 안 보여. 쭈정[수정]이도 난 몰라 난. & 엄마: 안 이어[잊어] 버리데[버리게] 수제[수정]이가 들고 있어{수정이는 아동의 이름임}(32개월).

(7)은 선행 문장의 주어 성분이 후행 문장에서 목적어 성분으로, (8)은 선행 문장의 주어 성분이 후행 문장에서 보어로 반복되면서 두 문장을 결속하는 경우이다.

문장 반복은 일부 성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문장 전체나 문장의 일부를 반복하여 두 문장을 결속하는 방법이다. 문장 차원의 반복은 선행 문장을 반복하고, 이러한 반복 표현 다음에 연결어미를 결합하여 후행 문장과 연결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⁷⁾ 이러한 반복 표현은 두 문장의 의미 관계를 드러내면서 두 문장을 결속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문장 성분을 단순 반복하는 경우보다는 복잡한 사용 방법이라 볼 수 있다.

- (9) 짐부((리)) 갔더[갔어]. 짐부이[짐보리] 갔= 짐부리[짐보리] 갔는데, 텐
탱님[선생님]이 “꾼났대[끌났다] 절루 가라.” 그랬더[그랬어].(27개월)
- (10) 꼬끼오는 여기 밥= 바닥에찌[바닥에서] 코 자. 꼬끼오는 바다.게찌[바
닥에서] 코 자는데, 아기염소는 밤이 ((아니에떼)), 안 자뚜(자도) 돼.
(29개월)

(9)-(10)은 문장 반복 표현이 나타난 예이다. 반복 표현으로 두 문장이 결속되고, 연결어미 ‘-는데’가 두 문장 내용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2.1.2 의미 관계에 따른 결속 표현

어휘적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은 선행 문장의 성분과 후행 문장의 성분이 단어의 의미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두 문장을 결속하는 형식이다. 유아기에는 반의 관계, 계열 관계에 의한 결속 형식이 나타나고 있다.⁸⁾

반의 관계에 의한 결속은 대부분 동일 성분을 결속하는 형식으로만

-
- 7) ‘연필 부러졌어. 연필 부러졌어’와 같이 선행 문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경우는 결속 형식으로 반복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 8) 유의 관계에 의한 결속은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하의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이라 보여지는 예가 1회 발견되기는 하나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나타나고 있으며, 계열 관계에 의한 결속 역시 마찬가지이다.⁹⁾

- (11) 선생님 감기에다 목이 아프다? 난- 다 나았다? (33개월)
- (12) 유빈이는 웅가해. 뽕뽕이는 치해[쉬해]. (23개월)

(11)에서는 ‘아프다-낫다’의 단어의 반의 관계에 의해, (12)에서는 ‘웅가-쉬’의 계열 관계에 의해 문장이 결속된다.

반의 관계와 계열 관계에 의한 결속은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동일 문장 구조의 결속 구조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은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형식을 흔히 중복하여 사용한다.¹⁰⁾

- (13) 은별이 손은 작다. 엄마 손은 크다. (26개월)

(13)에서 두 문장의 주어 성분은 계열 관계를 형성하고, 서술어 성분은 반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문장을 결속하고 있다.

2.1.3 접속 표현

접속 표현은 두 문장의 의미 관계를 드러내면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결속 형식이다.¹¹⁾ 반복 표현이나 의미 관계에 의한 표현 등이 주로 성분 결속을 위해 사용되는 형식이라면, 접속 표현은 문장 내용간의 결속에 주로 사용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기에는 접속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접속 표현으로는 ‘이제’, ‘또’의 형태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빈도에서도 각각 3회와 2회의 출현을 보일 뿐이어서, 다른 결속 형식에

9) Halliday & Hansan(1976), 김용도(1996) 등에서 반의어를 결속어로 다루고 있다.

10) 아동은 텍스트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동일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결속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속 구조는 문장의 일부 성분이 결속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성 성분의 수만큼 결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동이 구성하는 결속 구조의 한 특징이다(김명희 · 김순자 2003:41 참조).

11) 유아 초기에는 ‘그’계열의 접속 부사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계열의 접속 부사류는 조응 표현의 형식으로 다루고 접속 표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비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결속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¹²⁾

- (14) 아 다 먹었더(먹었어). 이제 여기다 담으자. (26개월, 05)
(15) 너기두[여기도] 안 칠했네, 또 이거. (34개월)

(14)에서는 접속어 ‘이제’가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의해 두 문장에 나타난 사건들 사이의 시간 관계를 드러내면서 두 문장을 결속한다. (15)는 첨가의 의미를 지닌 ‘또’가 두 문장을 결속하는 예이다.

접속 표현이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아동이 접속 표현을 습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장간의 결속에서는 출현과 빈도가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접속문에서는 접속 표현이 빈번히 나타나고 출현 시기도 빠르다. 그러나 이 역시 나타나는 형태는 ‘또, 이제’ 등으로 결속 형식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아동은 접속문에서 먼저 접속 표현을 사용하다가, 이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결속 형식으로 사용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³⁾

- (16) ((바토으도)) [발톱도] 빼족하구, 또 손도 빼쪽하구, 그리구 길쭉길쭉하구,
(26개월)
(17) ((-))도 넣고, 또, 국물도 넣고-, 또-, 오이도 넣고, 자, 먹자. 먹자. 먹자.
(35개월)

(16)-(17)은 접속문에서 ‘또’가 나타나는 예이다.

2.2 지시 표현

지시 표현은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간의 지시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12) 자료에서 접속어 ‘하지만’이 1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아동이 실제로 이러한 접속 표현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13) 대등적인 정보 나열의 ‘-고’ 연결문을 각각 독립된 단위로 분석하는 입장도 있다. (이희자 2001:129)

두 문장이 결속되는 유형이다. 유아기에는 생략 표현, 조응 표현, 직시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2.2.1 생략 표현

생략은 결속 형식이 무표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을 간결하게 하며 효과적이게 하는 결속 방법이다.¹⁴⁾ 생략 표현도 반복 표현과 마찬가지로 동일 성분의 생략과 상이 성분 생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생략은 주로 동일한 성분에 대해 이루어지지만, 동일한 성분이 아닐 경우에도 생략이 일어난다.¹⁵⁾

유아기에 나타나는 동일 성분 생략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성분의 생략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어는 동일 성분의 생략 가운데 58%, 목적어 생략은 32%로 나타나 대부분 주어 성분의 생략과 목적어 성분의 생략이 나타나며, 서술 성분 생략은 10%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¹⁶⁾

14) 텍스트 언어학에서 생략은 이른바 영조응, 무형 조응, 끌없는 대용, 빈꼴 대용 등의 이름으로 대용 표현의 하나로 처리되어 왔다(Halliday & Hasan 1976, 노석기 1995, 김일웅 1989 등). 특히 김일웅(1989)에서는 생략을 대용의 과정 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만을 한하여 생략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용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생략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이 논의에서는 생략을 조응과는 다른 결속 형식으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접속문, 내포문에서의 일어나는 생략 현상은 제외한다. 여기서는 텍스트의 결속 유형으로서의 생략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장 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생략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15) 양명희(1996:158)에서 접속문에서의 생략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이 아닐 경우에도 생략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16) 유아 초기 아동들이 동일 성분을 생략할 때, 생략되는 성분별 출현 빈도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동일 성분 생략의 성분별 출현 빈도

생략성분	출현수	상대 빈도
주어	57	57.58%
목적어	32	32.32%
서술어(부)	10	10.10%
합계	99	100.00%

(18) 엄마: 유빈이 얘기 잘 하잖아. 유빈이 오늘 이모하구 어디 갔어?

아동: 이모하구 시장 갔더[갔어].

엄마: 시장 가서 뭐 했어?

아동: 시장 갔져[갔어], 놀이토[놀이터] 갔더[갔어]. (24개월)

(19) 응. 엄마는 밥 먹어. 나 안 먹을래. (38개월)

(20) 아니, 이건 안 했어. 이거두. 이거두 이거두. (34개월)

(18)에서는 선행 화자의 발화에 나타난 주어 성분을 생략하여 두 문장을 결속하는 경우이다. (19)에서는 목적어 성분 ‘밥’을 생략하였으며, (20)에서는 서술부의 생략이 일어난 경우이다. 서술 성분의 생략은 다른 성분의 생략과는 달리 단어 차원에서 생략이 실현되지 않고, 특정 언어 요소만이 언어적으로 실현되고, 나머지는 모두 생략되는 형식으로 나타나며, 또한 그 실현되는 조건에서도 실현된 언어 요소에 보조사 ‘도’가 나타나거나, 접속어가 나타났을 경우에만 생략이 이루어진다.

상이 성분의 생략은 정보의 복원이 동일 성분에 비해 복잡하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생성이나 해석에서 인지적 노력이 더 드는 결속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으로 유아기에는 동일 성분 생략에 비해 출현빈도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21) 형아가 이거 먹었더[먹었어]. 먹어 봐. 맛이 없더[없어]? (36개월)

(22) 하- 맛있군-. 어머이조[어머니도] 따라야 되잖아, 엄마조[엄마도]. {우유를 마시고 나서} (39개월)

(21)에서 선행 문장에서 ‘이거’는 목적어 성분이지만, 후행하는 문장

유아기에 아동은 동일한 서술 성분을 다음 예문과 같이 지나칠 정도로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서술 성분 생략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아동 언어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1> 너기두[여기도] 안 칠했구, 너기두 안 칠했구 그어잖아[그렇잖아] (34개월)

<1>을 보면, 아동은 서술 성분을 지나칠 정도로 빈번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에서는 무표의 주어 성분으로 실현된다. (22)는 비언어적 생략의 예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두 문장의 성분이 모두 생략되어 나타나고 있다. 선행 문장에서는 주어 성분이, 후행 문장에서는 목적어 성분이 생략되어 나타난다.

유아들이 사용하는 생략 표현을 살펴보면, 언어 능력이 부족하여 문장 성분을 생략하여 문장을 결속하거나 무작위로 언어 요소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생략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 판단된다.¹⁷⁾ 다음 (23)에 나타나는 생략 표현의 예를 보면, 선행 문장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성분이 후행 문장에서 생략되어 나타나고 있다. 반복되는 성분은 화자와 청자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의 초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분이다. 따라서 아동이 이러한 성분을 생략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동이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생략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3) 아동: 꼬찌요[꼬끼오]- 때[자]!

엄마: 꼬끼요가 잔다구?

아동: 꼬찌요, 어-때[없다]!

엄마: <웃음> 꼬찌요 없-다!

아동: 여있네[여기 있네]!

엄마: 여있네. <웃음>

아동: 자-때(찾았다). (26개월)

(23)을 보면 ‘꼬찌요[꼬끼오]- 때[자], 꼬찌요[꼬끼오], 어-때[없다]’에서 주어 성분을 반복하다가 ‘여있네[여기 있네]’에서 주어 성분을 생략하고 있다. 이를 보면, 아동이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언어 요소가 비실

17) 아동이 사용하는 생략 표현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가 노은희(1994)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다. 노은희(1994:106-107)에서는 문답의 구조에 나타난 생략을 다루면서 아동이 사용하는 생략은 언어 표현의 비성숙한 실현인지 아니면 이전 발화에 정말 의존한 생략인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대답이 생략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완전한 문장을 가진다는 증거를 이전에 제시했다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의식적으로 주어 성분을 생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은 특히 다음과 같이 선행 문장을 다시 풀이하는 문장에서 생략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풀이 텍스트의 경우는 선행 문장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후행 문장에 나타나는 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주어나 주제부는 정보의 초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풀이 텍스트에서 아동이 주어나 주제부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이 정보의 초점화 양상에 따라 언어 요소를 생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4) 어, 이건 식탁이야. 식탁. 유빈이가 만든 거야. (28개월)

(25) 얘 아저씨 아니야, 그냥 아가야. (34개월)

(24)-(25)의 예는 선행 문장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 생략되고 있는 성분은 선행 문장에 나타난 ‘이거’, ‘얘’로 정보의 초점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주제부에 해당한다.

2.2.2 조응 표현

조응 표현은 선행 성분을 대명사 등의 추상적인 언어 형식으로 대신 지시하는 것으로 텍스트 결속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결속 형식이다.¹⁸⁾ 유아기 아동은 두 문장을 결속하는 방식으로 조응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선행 문장을 선행어로 하는 조응 표현만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선행 문장 성분을 조응하여 두 문장을 결속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18) 일반적으로 조응은 대용이라는 용어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논의에서는 페지시어와 지시어의 관계를 중시하여 조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본 논의에서는 조응과 직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안인경(1998:105)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조응과 직시는 선행어가 있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조응 표현은 직접적으로 대상을 지시하지 않고, 선행어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지시한다. 그 반면에 직시어는 대상을 바로 지시하고 선행어를 가지지 않는다.

아동은 조응 표현으로 ‘그러다, 그러하다’ 등의 지시 용언의 활용형을 주로 사용한다. 지시 용언의 활용형은 ‘그리하-’, ‘그러-’가 선행 문장이나 문맥을 조응하고, 그 뒤에 결합되는 연결어미로 두 문장의 의미 관계를 드러내며 문장을 결속한다. 이와 같은 조응 표현에는 ‘그’계 접속 부사류도 포함된다. ‘그’계 접속어는 본질적으로 ‘그러다, 그러하다’의 활용형으로 문장 내용을 대신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¹⁹⁾

지시 용언의 활용형으로 나타나는 조응 표현은 선후행 문장 내용의 의미 관계를 드러내면서 두 문장을 결속하게 된다.

(26) 아동: 여기 올라가구 있더[있어].

엄마: 여기 올라가구 있어?

아동: 그이구(그리구) 여기 문 들어 가=((있=)) 들어가는 거야. (26개월)

(27) 웅. 연두색이야. 연두색이랑 똑같지. 그래서 연두색이야. (34개월)

(28) 엄마 오빠 다리 아프대. 근까[그러니까] 내가 ((두드려 줄게)). (31개월)

(29) 네. 어~ 칼이 있어. 근데, 얘가 클나벼렸어[큰 일 나벼렸어]. ((-)) 집이 야. (32개월)

(30) 내가 아빠 혼내면 되지, 그러면 아빠는 날 무서워할 껄? (39개월)

(26)에서는 ‘그리고’가 시간 관계, (27)-(28)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가 인과 관계를, (29)에서는 ‘근데’가 두 사건의 배경과 모습 관계를, (30)에서는 ‘그러면’이 조건 관계를 드러내며 문장을 결속하고 있다.

아동은 아래의 예와 같이 조응 표현을 과다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31) “다른 차가 안 건너라고[건너라고], 그 다음에, 응~ 노란 불 되면은 건너가요. ((-)). 차가 근데, 비가 와요. 근데 개고리(개구리)가 있

19) ‘그’계 접속 부사를 일반적으로 대용어와 관련되나 품사가 아주 전성되어 정착된 고정 어형이라고 보는 입장과 대용어(조응어)로 규정한 입장이 있다. 전자는 ‘그’계열 접속부사는 독자적인 어휘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들이라고 보는 입장이 다이성영 2000:198). 그에 반해 후자의 입장은 접속 부사는 ‘그리하다’, ‘그러하다’의 활용형으로 ‘그리-’나 ‘그러-’는 조응의 기능을 갖고 연결어미는 접속의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양명희1996 등). 이 논의에서는 후자의 입장에 따라 ‘그’계 접속 부사의 경우는 조응 표현으로 보기로 한다.

어요. 비가 오는데 차가, 후반기 많이 있져요[있어요]. 풀[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찌르는데, 코 코 ((-))고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근데 차가 다 뿐셔졌어요(부서졌어요).”예.(36개월)

(31)을 보면, 아동은 연결되는 매 문장마다 ‘근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응 표현의 과다한 사용은 구어에 흔히 나타나는 임여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아동은 ‘그리고’로 사건을 나열하면서 결속하기도 한다.²⁰⁾ 유아들은 특히 유사한 행위를 나열할 경우에는 ‘그리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32) 먼명이는[명명이는], ((아이에)) 앓이면(앓으면)돼. 구이구[그리고] 명명 이는 너기[여기] 안즈믄[앓으면] 돼. 그이구[그리고] 뽕뽕이는 여기 앓 으믄(앓으면) ((-)). (29개월)

(33) 아동: ((호랑이)) 디게[되게] 무져워[무서워]. ((개구=)) 고래도 무섭고 ((-))도 무섭고 그래.

엄마: 악어도 무서워[무서워].

아동: 응.

엄마: 나 아=, 나 악-어,

아동: 나 호랑이 해야지, 그리고 샤어[상어]도 무섭구. (41개월)

(32)-(33)은 사건을 나열하는 기능으로 ‘그리고’가 나타난 예이다. 이에서 유사한 사건을 나열하는 경우에 ‘그리고’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는 인접하지 않은 문장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33)에 나타난 ‘그리고’는 바로 선행하는 문장 ‘나 호랑이 해야지’를 지시하지 않고, 그 이전의 문장들 “((호랑이)) 디게[되게] 무져워[무서워]. ((개구=)) 고래도 무섭고 ((-))도 무섭고 그래.”를 지시하고 있다.

20) 나열은 사건과 사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표현 전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장경희(1995:160)에서는 나열은 언어의 형식을 벌려 놓는 언어의 표현 행위이기 때문에, 사건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언어 표현들의 접속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응 표현으로 지시 관형사 ‘그’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지시 관형사 ‘그’는 선행 성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문장을 지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아기에는 주로 ‘그 다음’, ‘그 때’ 등의 형태로 나타나 문장간의 시간적 관계가 드러낸다.

- (34) 응. & 요렇게 하면 된다. 그치? & 그 담엔, 요거 네모를-, 요렇게 하는 거야. (37개월)
- (35) 요렇게 엄마가 여러 가지 하면 되는 거에= & 그 담에 요거 옷도 만드는 거에요. (37개월)

(34)-(35)는 ‘그 다음에’라는 구절적 표현에 의해 두 사건의 시간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이다. 조응 표현으로 현재 진행되는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대명사도 1회의 예가 보인다. 이때도 대명사가 지시하는 선행어는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 (36) 아동: 코끼리 맞어-! 봐봐 코끼리.{강한 어조로 말함}
 엄마: 코-끼-리- 쓰여 있어?
 아동: 어. 코끼리잖아. 그것도 몰라? (35개월)

(36)에서 ‘그것’은 선행 문장 ‘코끼리잖아’를 지시하고 있다.

<표 4> 조응 표현의 형태별 출현 빈도

범주	형태	출현빈도	백분율
지시용언의 활용형	근데	40	116 89.00%
	그리고	30	
	그러면	26	
	그러니까	4	
	그래야	1	
	그래서	13	
	그래도	1	
	그래갖고	1	
지시관형사	그	14	11.00%
지시대명사	그것	2	2.00%
합 계		132	100%

이상으로, 아동이 사용하는 조응 표현을 살펴보았다. 유아기 아동에게서는 선행 문장을 조응하는 형식만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조응 표현의 형식으로는 지시 용언의 활용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표 4>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위 표를 보면, 조응 표현으로 ‘그’ 계열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시 용언의 활용형의 세부적인 형태로는 ‘근데’, ‘그리고’, ‘그러면’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¹⁾

2.2.3 직시 표현

아동은 직시 표현을 통해서도 텍스트를 결속한다. 직시는 조응과 달리 직시 자체가 텍스트의 결속 형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직시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표현이므로, 직시 표현이 나타난다고 해서 텍스트의 결속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직시 표현이 결속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텍스트에서 연결되어 나타나는 문장들에서 동일한 대상을 직접 지시하는 표현이 나타날 때이다. 이 때는 선행 문장에서 지시하는 대상과 후행 문장에서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함으로써 두 문장은 공지시 관계에 의해 결속이 이루어진다.

직시 표현은 결속되는 두 성분이 모두 직시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행 문장의 성분은 사물에 대한 지칭 표현으로 나타나고 후행하는 문장에서는 대상에 대한 지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지도 한다.

21) 실제 구어를 대상으로 성인의 조응 표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의 사용하는 조응 표현의 형식과 성인의 조응 표현의 형태의 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박정준(1994) 토론 담화에 나타나는 대용 표현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아동이 사용하는 조응 표현이 성인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박정준(1994)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론 대화에서는 ‘그’계(162회), ‘이-’계는 73회 ‘자-’계는 17회의 조응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계의 조응 표현은 ‘그(25회), 그린(23회), 그래서(16회), 그러니까(9회), 그렇죠(9회), 근데(8회)’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비록 토론 대화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에서는 지시관형사 ‘그’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아동이 사용하는 조응 표현의 형태 출현 빈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7) 이거 징검다리네. 여기에서 건너더니 여기에서 건너다. (32개월)

(38) 아동: 아가 애치.

엄마: 응

아동: 애가 감기 들려(걸려), 클나(큰일나). (34개월)

(37)에서는 ‘이거’가 지시하는 대상과 ‘여기’가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언어 표현의 공지시 관계에 의해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38)에서는 선행 문장 ‘아가’와 후행 문장의 ‘애’는 공지시 관계를 갖는다. 이때 대명사 ‘애’는 선행 문장에 나타난 ‘아가’를 다시 재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 현장에 있는 대상물을 직시하고 있다.

지칭 대상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전체-부분’과 같이 나타날 경우도 있다.

(39) 아동: 으니[은별이] 짜전거[자전거] 다 있다.

엄마: 어-, 은별이 자전거도 있네?

아동: 이거, 이걸, 짜고[잡고]

엄마: 어-, 은별이 자전거도 있네?

아동: 이거-, 이걸, 짜꼬[잡고].

엄마: 손잡이를 잡고

아동: 이걸-, 이걸, 오여 가지고. (31개월)

(39)에서는 엄마의 발화에서 보이는 바대로 아동이 ‘이거’로 직시한 대상은 ‘은별이 자전거’의 일부인 ‘손잡이’이다. ‘이거’가 선행 문장에서 지시하는 대상의 일부를 지시하므로 이 역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함으로써 두 문장이 결속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직시 표현은 문장 성분의 직시 대상인 대상이 동일함으로써 두 문장이 결속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직시 표현은 문장 성분을 결속하는 형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조응 표현이 선행 문장의 일부 성분을 조응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동이 인정 대명사, 장소 대명사 등의 지시 표현을 선행 문장의 일부 성분을 지시하는 기능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상물을 직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직시 표현으로는 ‘이’ 계열이 주로 나타난다. 이는 아동이 사용하는 직시 표현의 형태별 출현 빈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5> 직시 표현 형태별 출현 빈도

범주	형태	출현빈도		백분율
지시대명사	이거	14	19	76.00%
	여기	5		
인칭대명사	얘	3	4	16.00%
	쟤	1		
지시관형사	이	2		8.00%
합계		25		100%

위 표를 보면, 아동은 인칭 대명사나 지시 관형사보다는 지시 대명사를 주로 사용하며, 대부분 ‘이’계열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직시 표현으로 주로 ‘이’계열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동이 자신과 가까이 있는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

이 장에서는 결속 형식이 습득 순서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아동이 결속 형식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1 결속 형식의 습득 시기와 순서

이 논의는 대략 8-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녹음하여 전사한 아동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작 시점부터 결속 형식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대상 아동 가운데 시작 시점에서 결속 형식을 습득하기 시작한 대상은 A, B 아동이다. C, D 아동은 관찰 기간 동안 결속 형식을 습득하지 못하였으며, E, F, G, H 아동은 시작 시점

부터 여러 가지 결속 형식을 이미 습득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결속 형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A, B 아동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²²⁾

다음은 A, B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결속 형식의 출현 시기를 보인 것이다.²³⁾

<표 6> A, B 아동의 결속 형식의 첫 출현 시기

결속 형식	결속 내용		A아동 (23개월-30개월)	B아동 (25개월-34개월)
반복 표현	성분	동일	23개월	26개월
	결속	상이	26개월	32개월
	문장 결속		27개월	31개월
반의 관계	성분	동일	23개월	26개월
	결속		23개월	26개월
접속 표현	문장 결속		26개월	31개월
생략 표현	성분	동일	24개월	26개월
	결속	상이	-	-
직시 표현	성분	동일	29개월	31개월
	결속	상이	27개월	32개월
조응 표현	문장 결속		26개월	31개월

<표 6>에서 결속 형식은 성분을 결속하는 경우와 문장 내용을 결속하는 경우로 하위 구분하였다. 성분 결속은 다시 동일 성분 결속과 상이 성분 결속으로 하위 구분하였다. 위 표에서 음영을 둔 부분은 개별 결속 형식이 처음 출현한 시기를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아동의 반복 표현의 출현 시기를 보면, 성분 반복인가 문장 반복인가에 따라 여러 유형의 반복 표현이 첫 출현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반복 표현 형식이 처음으로 출현하는 시기는 23개월이라는 뜻이다.

22) 2명 아동의 자료만으로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아동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종적 고찰을 통하여 연구를 보충해 나갈 계획이다.

23) A 아동은 23-30개월(월령) 동안, B아동은 25개월-34개월 동안 관찰한 대상이다.

아동이 결속 형식을 습득하는 시기는 아동별로 차이를 보인다. A아동은 23개월부터 결속 형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며, B 아동은 26개월부터 결속 형식을 습득하기 시작하고 있다. C 아동과 D 아동이 각각 32개월과 30개월까지 결속 형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결속 형식의 습득 시기는 아동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A아동과 B아동은 결속 형식의 습득 시기는 차이를 보이나, 결속 형식의 습득 순서는 일정한 방향성을 보인다. A아동은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 → 생략 표현 → 직시 표현, 접속 표현 → 조응 표현’ 등의 순서로 결속 형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B 아동은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 생략 표현 → 조응 표현, 직시 표현, 접속 표현’ 등으로 순서로 결속 형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아동의 경우 생략 표현과 조응 표현이 습득되는 시기 차이가 그 이전 결속 형식의 습득 시점과 1개월 정도의 차이만이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동은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 생략 표현’을 거의 같은 시기에 먼저 습득하고, ‘조응 표현, 직시 표현, 접속 표현’을 같은 시기에 습득할 것이라 판단된다.

A, B 아동은 반복 표현과 생략 표현의 습득과 사용에서 일정한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 결속 형식을 습득하게 되면, 아동은 먼저 동일 성분에 대한 결속에 이러한 형식을 사용한다. 우선, 반복 표현을 보면, 두 아동 모두 동일 성분을 반복한 이후에 상이 성분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략 표현의 습득에서도 두 아동 모두 동일한 성분에 대한 생략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A, B 아동 자료에게서는 상이 성분 생략은 출현하지 않는데, 이러한 결속 방법은 F, H 아동의 자료에서 비교적 늦은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 F아동의 경우는 37개월에 H아동의 경우는 36개월에 상이 성분 생략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동은 동일 성분 생략을 먼저 습득하고 상이 성분의 생략은 이보다는 늦게 습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시 표현의 습득에서는 두 아동이 차이를 보인다. A아동은 동일 성분을 결속하는 직시 표현이 먼저 나타나고 있으며, B아동은 상이 성분

을 결속하는 직시 표현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결속 형식을 습득하는 시기는 아동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결속 형식의 습득 단계의 관점에서 보면, 일정한 순서를 보임으로써 결속 형식의 습득에 보편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3.2 결속 형식의 습득 단계

아동은 결속 형식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습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기에 여러 유형의 결속 형식을 동시에 습득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아동의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은 개별적인 결속 형식의 습득이 아니라 결속 내용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동은 ‘문장 구성 성분 결속 형식 → 문장 내용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3.2.1 문장 구성 성분 결속

앞에서 아동이 처음 습득하는 결속 형식은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 생략 표현이다. 이러한 결속 형식은 습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동일한 문장 성분을 결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⁴⁾

문장 성분에 대한 결속은 ‘동일 성분 결속 → 상이 성분 결속’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진행 단계를 보이는 결속 형식으로는 반복 표현과 생략 표현이 있다. 아동은 이 두 결속 형식을 습득 초기에는 동일한 성분만을 결속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다 일정 시점에 와서는 상이한 성분을 결속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동이 상이 성분을 결속하는 방식을 습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습득되는 결속 형식에서는 그 사용 양상에서 ‘동일 성분 결속 → 상이 성

24) 반의 관계와 계열 관계에 의한 결속 형식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성분에 대한 결속을 이룬다. 따라서 결속 형식 습득 시작 시점부터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아동이 동일한 성분에 대해 결속할 수 있는 능력부터 갖추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이다.

분 결속’의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문장 성분의 결속 형식의 하나인 직시 표현은 반복 표현과 생략 표현보다는 늦게 습득되는 형식인데, 습득되는 시점부터 상이 성분을 결속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직시 표현이 습득되는 시점은 거의 상이 성분을 결속하는 시점과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아동은 일단 상이 성분을 결속할 수 있는 능력이 습득된 이후에는 여러 결속 형식에 이를 적용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자료에서는 성분 결속 형식의 출현 빈도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엿볼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반복 표현이 아동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는 아동이 순차적으로 결속 형식을 습득하기보다는 비슷한 시기에 여러 결속 형식을 동시에 습득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성분 결속과 상이 성분 결속의 사용에서도 상이 성분 결속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거나 하는 방향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은 비슷한 시기에 여러 형식을 상이 성분을 결속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 역시 출현 빈도의 증가나 감소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43개월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발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동이 성분 결속에 고빈도로 사용되는 결속 형식은 나타나고 있다. 주로 반복 표현이 사용된다. 이는 <표 7>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7>은 대상 아동이 문장 성분 결속에 사용하고 있는 결속 형식의 유형별 출현 빈도를 보인 것이다.

<표 7> 결속 성분 형식의 유형별 출현 빈도

결속 성분	결속 형식	출현 빈도	백분율
동일 성분	반복 표현	241	49.08%
	생략 표현	99	20.16%
	의미 관계	64	13.03%
	직시 표현	12	2.44%
상이 성분	반복 표현	59	12.02%
	생략 표현	3	0.61%
	직시 표현	13	2.65%
합 계		491	100.00%

위 표를 보면, 유아기 아동이 결속하는 성분은 동일 성분이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반복 표현을 통해 문장 성분을 결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2.2 문장 내용 결속

결속 형식의 습득 시작 시점에서는 문장 내용을 결속하는 형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동은 문장 성분을 결속하는 형식을 습득한 이후에야 문장 내용을 결속하는 형식을 습득하게 된다. 문장 결속 형식은 순차적으로 습득되지 않고, 여러 형식이 동시에 습득되어 사용된다. 유아기에 문장 내용을 결속하는 형식으로는 조응 표현, 접속 표현, 문장 성분의 반복이 사용되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은 이러한 결속 형식을 거의 동시에 습득한다. 조응 표현, 접속 표현은 문장 내용을 결속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습득되는 형식이며, 문장 성분의 반복은 이미 습득한 반복 표현의 기능이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다.

아동이 문장 내용을 결속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조응 표현이다. 23-43개월 아동이 문장 내용 결속 형식의 출현 빈도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8> 23-43개월 문장 내용 결속 형식의 출현 빈도

결속 형식	출현 빈도	백분율
조응 표현	132	78.57%
문장 반복 표현	31	18.45%
접속 표현	5	2.98%
합계	168	100.00%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장 내용 결속 형식 가운데 거의 79%가 조응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접속 표현은 3%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은 다양한 접속 표현을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응 표현을 접속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은 주로 ‘그’계열의 접속 표현만을 사용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서는 성분 결속 형식에서와 같이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별로 문장 내용 결속 형식의 출현 빈도가 점차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등의 추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동별로 어떤 개월에는 문장 내용 결속이 출현 빈도가 높아지다가 그 다음 개월에서는 다시 낮아지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이 구성하는 텍스트의 화제 내용에 따른 것이라 풀이된다. 예를 들어 아동이 현장에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경우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결속 형식이 달라지게 된다. 이야기를 전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어 전달해야 하므로 문장 내용 결속이 상대적으로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

4. 결 론

본 논의에서는 23-43개월 아동이 사용하는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동이 실제 사용하는 결속 형식과 사용을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이러한 결속 형식을 습득하는 순서와 단계를 알아보았다.

23-43개월 아동은 반복 표현, 생략 표현, 조응 표현, 직시 표현, 의미적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 등 다양한 결속 형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결속 형식의 사용에서는 아동 특유의 사용 양상을 살필 수 있었는데,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유아기에는 선행 문장 성분을 지시하는 기능으로 조응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동은 선행 문장을 지시하는 조응 표현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아기 아동은 1인칭 주어 성분을 반복하거나 서술 성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동은 동일한 서술 성분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할 정도로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세부적으로 아동이 결속 형식을 사용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결속 형식의 습득 시기는 아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에 따라

9개월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습득 순서는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아동은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 생략 표현’은 거의 같은 시기에 먼저 습득하고, ‘조응 표현, 직시 표현, 접속 표현’은 나중에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속 형식의 사용 양상과 습득 순서를 고려해 볼 때, 아동은 문장 성분 결속 형식의 습득 단계에서 문장 내용 결속 형식 습득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초기에 습득한 반복 표현과 생략 표현의 사용에서도 아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보였다. 아동은 이러한 결속 형식을 습득하게 되면 ‘동일 성분 결속 → 상이 성분 결속’의 방향으로 사용을 확대해 나간다. 그러나 일단 상이 성분을 결속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습득되는 결속 형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논의에서는 개별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면밀히 살피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미루기로 하겠다.

<참고 문헌>

- 김명희 · 김순자(2003), “유아의 결속 구조 형성 능력 발달 과정 - 유아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 『한국어 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용도(1996), 『텍스트 결속 이론』,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노석기(1990), “우리말 담화의 결속 관계 연구”, 『한글』 제208호(여름치), 한글학회, 91-127쪽.
- 노은희(1994), “담화에서의 생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전청어문』 22집.
- 박정준(1994), 담화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연구-토론 담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희(1996), 현대 국어의 대용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인경(1998), “한국어와 독일어의 직시 - 장소직시를 중심으로 -”, 『텍스트 언어학』 5.

이성영(2000), “글쓰기 능력 발달 단계 연구 - 초등학생의 텍스트 구성 능력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126호. 국어국문학회.

이승복 역(2001), 『언어 발달』(Robert E. Owens, Jr., 1988, *Language Development*, ALLYN & BACON), 시그마프레스.

이희자(2001), “한국어 교재 텍스트의 효율적인 분석 방법론 1 - ‘주제부’의 텍스트 결속 기능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 『텍스트 언어학』 1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장경희(1990), “조응 표현”,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국어 연구회, 동아 출판사. 271-290쪽.

장경희(1995), “국어 접속 어미의 의미 구조”, 『한글』 제227호. 한글학회. 151-174쪽.

장경희(1997), “대화 텍스트의 결속 구조”, 『한양어문』 15집. 283-300쪽.

주영희(2001), 『유아 언어 발달과 교육』, 교문사.

황미향(1998), “한국어 텍스트의 계층 구조와 결속 표지의 기능 연구”, 경북 대 박사학위논문.

Halliday, M. A. K &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van Dijk, T.A. (1977), *Text and Context*, Longman.

<초록>

유아의 텍스트 결속 형식 습득 과정

장경희 · 김명희 · 김순자

본 연구의 목적은 23개월-43개월 아동들의 언어에 나타나는 텍스트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살피는데 있다. 아동이 사용하는 결속 형식으로는 반복 표현, 생략 표현, 조응 표현, 직시 표현, 접속 표현이 나타나며, 또한 반의 관계, 계열 관계 등의 단어의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속 형식의 습득 과정을 보면, 아동은 먼저 생략 표현, 반복 표현, 의미 관계에 의한 결속 표현을 거의 같은 시기에 먼저 습득하고, 그 다음 조응 표현과 직시 표현, 접속 표현 등의 결속 형식을 같은 시기에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보면, 아동은 ‘문장 성분’을 결속하는 형식의 습득에서 ‘문장 내용’을 결속하는 형식의 습득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장 성분을 결속하는 형식은 습득되는 초기에는 동일 성분만을 결속하다가 비동일 성분을 결속하는 방향으로 그 사용 방법이 다양해진다.

【핵심어】 결속 형식, 습득 과정, 문장 성분 결속, 문장 내용 결속

<Abstract>

**The acquisition process of cohesive forms
in the early period of childhood**

Chang, Kyung-hee · Kim, Myung-hee · Kim, Sun-j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cess in which the Korean children of 23 to 43 months acquire the forms of text cohesion. The boys and girls in their early period of childhood differ with adults on the aspects and usage of cohesive forms. They make use of the cohesive forms such as repetition, ellipsis, anaphora, deixis and conjunction as well as the cohesive expressions based upon the semantic relations such as antonymy, paradigmaticity, etc. When it comes to the order of acquisition of these cohesive forms, there's some difference. Ellipsis, repetition, antonymy and paradigmaticity are first acquired in quite a similar period. Then comes the acquisition of anaphora, deixis, conjunction, etc. Having looked into the order of acquisition of cohesive forms and the aspects of their usage as above, we could say as follows: from the acquisition of cohesive forms concerning 'sentence constituents', the children move on to that concerning 'sentence meanings'. And the usage of cohesive forms concerning 'sentence constituents' becomes diverse, which means that, starting from the initial stage where only the cohesion of identical elements is observed, the children finally get to the stage of cohesion of nonidentical elements.

【key words】 cohesive forms, acquisition process, cohesive forms concerning 'sentence constituents', cohesive forms concerning 'sentence meanings'